



22120163



**KOREAN A1 – STANDARD LEVEL – PAPER 1**  
**CORÉEN A1 – NIVEAU MOYEN – ÉPREUVE 1**  
**COREANO A1 – NIVEL MEDIO – PRUEBA 1**

Thursday 10 May 2012 (morning)

Jeudi 10 mai 2012 (matin)

Jueves 10 de mayo de 2012 (mañana)

1 hour 30 minutes / 1 heure 30 minutes / 1 hora 30 minutos

---

**INSTRUCTIONS TO CANDIDATES**

- Do not open this examination paper until instructed to do so.
- Write a commentary on one passage only. It is not compulsory for you to respond directly to the guiding questions provided. However, you may use them if you wish.
- The maximum mark for this examination paper is *[25 marks]*.

**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**

- N'ouvrez pas cette épreuve avant d'y être autorisé(e).
- Rédigez un commentaire sur un seul des passages. Le commentaire ne doit pas nécessairement répondre aux questions d'orientation fournies. Vous pouvez toutefois les utiliser si vous le désirez.
- Le nombre maximum de points pour cette épreuve d'examen est *[25 points]*.

**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**

- No abra esta prueba hasta que se lo autoricen.
- Escriba un comentario sobre un solo fragmento. No es obligatorio responder directamente a las preguntas que se ofrecen a modo de guía. Sin embargo, puede usarlas si lo desea.
- La puntuación máxima para esta prueba de examen es *[25 puntos]*.

다음 중 하나를 골라 해설하시오.

1.

**제3인간형\***

나는 미이의 가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했네. 그러나 미이와 자주 만나는 사이 처음의 순수했던 생각보다도 야심이 더 앞을 섰다는 것을 고백하네. 술과 계집이 마음대로였던 내 생활이라, 미이에 대해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도 좀 다르다고 미이 자신이 눈치챘을 것일세.

- 5 나는 다방을 하나 차려줄 것에 생각이 미치었네. 이것이면 내 힘으로 자금 유통도 되고, 미이의 명랑성도 센스도 살릴 수 있고, 수입면도 문제없다고 생각했네. 이 계획을 말했더니,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듣고, 얼굴에 희망의 불그레한 홍조까지 떠올리던 미이였으나, 다음날 오일간의 생각할 여유를 달라는 것이었었네. 더 생각할 여지도 없는 일일 터인데 망설이는 것이 수상쩍었으나, 그러마 하고 나는 동아극장 옆에 있는 마침
- 10 물러주겠다는 다방 하나를 넘겨맡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네. 그 닷새 되는 날이 오늘이고, 정한 시각에 연락 장소인 다방엘 갔더니, 레지가 내민 것이 종이꾸러미였었네. 펴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. 다른 길과 달라 간호장교이고 보니, 생활 방편을 위한 것이 아님이 대뜸 짐작이 갔고, 더욱 나의 뒤통수를 때린 것이 검정 넥타이였었네. 그러면 미이가 첫날 다방에서 ‘사명 운운’ 했던 것은 그 길을 말함이었던가? 나는 부끄럽기 짝이
- 15 없었네. 검정 넥타이를 들고 나는 비로소 삼년 동안 내가 정신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었네. 미이가 말하는 그 사명을 찾는 길, 사명을 다하는 일을 나는 사변이라는 외적인 격동 때문에 포기하고 만 것일세. 가장 잘 생각하는 체하던 나는 가장 바보같이 생각했고, 부박하다고 세상을 모른다고 여기었던 미이는 사변에서 키워졌고 굳세어졌고, 올바른 사람이 된 것일세. 이렇게 생각하자 나는 천야만야한
- 20 낭떠러지를 굴러 떨어지는 듯했네. 구르면서 걸어잡으려고 한 것이 친구의 구원이었네. 자네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일세…….

조운의 긴 이야기를 듣고 난 석은, 여기 올 때까지 그렇게 호기심을 끌었고 기대의 대상이 되었던 그에게는 이제 아무런 흥미도 가지지 않았다. 더욱이 그의 고민 같은 것은 문제도 아니었다.

- 25 석의 뇌와 마음은 강렬한 미이의 인상으로 꽉차 있었다. 그리고 미이가 조운의 마음에 던져준 충격 이상의 충격을 석도 받지 않을 수 없었다. 안주가 좋아서만이 아니었다. 그 강렬한 배갈도 석을 취하게 하지 못했다. 역시 마음이 미이로 말미암아 팽팽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. 조운의 차로 집에 들어와서도 석은 큰소리를 탕탕 치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다.
- 30 얇전하게 자리에 들어가 가족들을 들볶지 않았다. 그의 엄숙한 태도에 가족들은 또 술을 먹었다고 잔소리를 할 수 없었다. 자리에 드러누워 그는 생각하였다. ‘조운의 말대로 조운은 사변의 압력으로 그의 사명을 포기했고, 사변을 통하여 미이는 용감하게 시대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였다. 그러면 나는?’
- 35 눈을 감았다 뜨며 석은 중얼거렸다. “사명을 포기치도 그것에 충실치도 못하고 말라가는 나는? 나도 사변이 빚어낸 한 타입이라고 할까?”

안수길 <자유세계> (1953)

\* 제3인간형: 인간의 유형을 나눈 세 번째 인간형이란 의미

- 이 글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논하시오.
- 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이 글의 언어와 문체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논하시오.
- 이 글의 제목과 주제와의 관계에 대해 논하시오.

2.

**풀잎**

내 사랑은 옷자란 풀처럼 튀어  
그대에게 가고  
내 마음은 실밥이 되어 그대 옷깃에 묻어가고  
인생은 아름다운 꽃으로 피고  
5 인생은 더러워져 꽃으로 지고  
한순간 모든 것은 변한다. 멈춰 선다.  
태엽 감겨진 모든 것들은  
풀어질 대로 풀어져 더는 돌아갈 수 없는  
영원히 멈춰 서 있다는 것의 아린 마음이며.

정은숙 <문학사상사> (2003)

- 이 시에 주제에 대해 논하시오.
  - 이 시의 대상에 대한 시인의 태도는 어떠한가?
  - 이 시에서 사용된 문학적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.
-